

“80년 5월 죽음 넘어선 연대, 민주주의 버팀목”

5·18 45주년

‘소년이 왔다’ 광주를 끝까지 안았다

<5·18이 남긴 위대한 유산>

‘광주정신’으로 12·3 비상계엄 극복 연대와 참여의 경험 현재까지 계승 “5·18,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 증명”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날은 비록 패배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5000여명의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5·18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됐다. 5·18 유족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5·18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뿌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연자 여사는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45년 전 5월을 회고했다.

김 여사는 “1980년 5월 27일 도청에 끌

까지 남은 아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다. 우리 재학이도 그중 하나”라며 “그때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었다. 5·18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비상계엄이나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시민이 어떻게 연대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을 알려주는 거울이다”고 그날을 기억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비상계엄에 대해 “45년 전 광주처럼, 현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5·18의 희생과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를 넘어 80년 5월이 부활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교수는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

받았던 그날, 5·18의 기억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날 국회 본청 뒤에 착륙한 3대의 헬기는 마치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일빌딩에 총격을 가한 당시 상황을 연상케 했다.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5·18을 떠올리며 그날의 아픔에 공감했다. 45년이 지난 지금 1980년의 5월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달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 승리대회’가 열려 시민들이 “이제는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정준 기자

김 교수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대동세상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계엄군의 폭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가 펼쳤던 연대와 참여의 경험이 현재에 발현됐다고 생각한다”며 5·18의 의미를 되짚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밝힌 5·18”
윤석열 정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되풀이하듯, 2024년 12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지만, 광주를 기억하는 이들에 의해 저지됐다.

최정희 광주지방법원 호사회 제1부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비상계엄 조치에 항의하는 광주민주화운동

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했던 것처럼,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투입된 군경을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불법적인 군부의 권력 장악 시도에 맞서,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온몸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회복과 제도화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정착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정준·정승우 기자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천동마을에 위치한 윤상원 열사의 생가에서 열린 윤 열사 제45주기 추모식에서 광산구 청년 공직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헌신 기억할 것”...윤상원 열사 45주기 추모식 열려

광주 광산구 주최, 생가 천동마을 “올바른 길 이끄는 굳건한 이정표”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끈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최후 항쟁의 주역이자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천동마을에 위치한 윤 열사의 생가에서 열린 광산구 주최 제45주기 추모식에는 박병규 구청장과 청년 공직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묵념과 추도사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장현권 목사는 자작시 ‘5월의 노래’를 낭독하며, 젊은 나이에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윤 열사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장 목사는 “어려운 이들을 지나치지 않

았던 윤 열사의 따뜻하고 의로운 마음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며 “의향 광주에 윤 열사와 같은 훌륭한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윤 열사의 어머니 김인숙 여사를 찾아뵙고 안부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생가 곳곳을 둘러보며, 고인의 흔적을 상기했다.

윤 열사의 비석 앞에 헌화를 마친 청년 공직자들은 윤상원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되새겼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먹밥 나눔 행사와 오월 버스킹도 진행돼, 광주 정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2·3 계엄 사태에 맞선 시민 연대의 뿌리에는 5월의 광주가 있다”며 “윤 열사의 정신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는 굳건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철·윤준명 기자

5·18 푸른 눈의 시민군 “그날 도청 앞 나서지 못한 것, 평생 후회”

데이비드 돌린저씨 어제 광주 방문 기록관, 외국인 시민군 기획전 열어 사격 목적·윤상원과 기억 회고 시, ‘명예시민’ 위촉... “영광스럽다”



조, 감청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귀국 이후에는 유엔에 한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022년에는 ‘나의 이름은 임대운’이라는 책을 출간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은 시민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당시 건물 높이를 고려해도 총격은 명확히 육안으로 식별됐고, 사용된 연성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환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외신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통역 가능한 평화봉사단원들과 통역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노력했다.

돌린저 씨는 “시민군은 정부 통제를 받는 통역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했다”고 말했다.

돌린저 씨는 옛 전남도청에 초대돼 시민군 활동에 참여했고, 그 자리에서 윤상원 열사와의 깊은 인연도 기억했다.

그는 “윤상원 열사는 외국인 참여에 반

대하는 이들에게 ‘그는 광주시민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나를 감쌌다.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인상 깊었다”고 회고했다.

5·18 항쟁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 그는 울먹였다.

돌린저 씨는 “항쟁 마지막 날 도청 앞을 지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그날의 참혹한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진 않지만, 거기 있었어야 했다”며 “만약 희생이 필요했다면 기꺼이 했을 것이다. 죽더라도 보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대변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여러 측면에서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돌린저 씨의 헌신과 공로를 기려 그를 ‘광주 명예시민’으로 위촉했다. 돌린저 씨는 “광주시민은 나에게 가족이다. 명예시민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유철 기자

광주서 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20대 남성 ‘입건’

광주 도심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거부) 혐의로 A(2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을 세 번 이상 거부

할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단속 당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